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 ‘비상’ ‘청정’ 전남도, 유입 차단 총력

봄·가을 집중발생해 시기별 방역관리·입국 검역 강화...방역수칙 준수 당부



야생멧돼지 추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그물망을 설치하고, 멧돼지 기피제 살포작업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 지역인 전남도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검출 지점이 남쪽으로 내려옴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시기별 차단 방역 강화에 나섰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과 물류 이동이 증가하는 봄·가을 집중 발생한다.

올해 3월엔 강원, 경기 등에서 6건이 발생하는 등 겨울에도 이례적으로 발생해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는 연중 위험 시기별 방역관리와 상시예찰 기준 개선,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 입국 검역 강화 등을 추진하고 농장에는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영농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시기인 4~5월과 9~11월 바이러스가 양돈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 취약농가 점검과 소독을 강화한다.

7~8월엔 장마와 태풍 등 재난 발생 단계별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1~3월엔 한과 대비 소독장비 등과 방지 방안 등 방역수칙을 홍보·점검할 방침이다.

또 상시예찰 기준을 개선하고, 야생멧돼지 개체 수와 서식밀도를 낮추기 위해 시·군 피해방지단 398명이 집중적인 포획·수색에 나선다.

중국과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취항 노선 검역도 강화하고, 여행객에게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홍보 등 해외 유입 가능성 차단에 주력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양돈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전남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양돈농장은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인 통제, 방역복 착용,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돼지농장에서 인천 5건, 경기 15건, 강원 14건 등 34건과 야생 멧돼지에서 경기 674건, 강원 1784건, 충북 370건, 경북 154건 등 2982건이 발생했다.

전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상춘객 모여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장 첫날인 1일 오후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박람회장이 북적이고 있다.

고속도로 카메라 ‘반짝 감속’...순찰차에 딱 걸린다

경찰, 단속카메라 탑재형 고속순찰차 전국 고속도로 투입

이달부터 고속도로 주행 중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을 할 경우 경찰 순찰차량에 적발될 수 있다.

경찰청은 고속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을 할 수 있는 탑재형 단속 장비를 이달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자들이 고정식 단속 장비를 의식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지난해 탑재형 단속 장비를 단 암행 순찰차를 일부 투입해 총 14만8028건을 단속한 바 있다. 이 기간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66% 가량 감소하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초 3개월간 탑재형 단속 장비 시범운영을 마친 고속순찰차를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고속도로에 배치한다. 특히 야간에 단속이 가능하도록 레이더가 개선된 고속순찰차를 주·야간 구분 없이 배치, 상시 운영해 초 과속·난폭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및 난폭운전은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최이슬 기자



2023 보성 세계차茶 EXPO

2023 The 11th BOSEONG WORLD TEA EXPO

“천년의 보성 차, 세계를 품다!”

·기간 2023.4.29.~5.7.(9일간)

·장소 보성군 일원

주최·주관 보성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보성군

작년에 20만원 공제했는데 4월 건보료 정산, 내 월급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 이달 적용된다. 전년 대비 연봉 인상 등 소득이 증가한 경우 건강보험료가 올라 평소보다 급여가 감소할 전망이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 사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4월 급여에 반영된다. 이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따른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2023년도 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3.545%를 부담한다.

단 직장가입자는 매년 연봉 협상이나 승진,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달라진다.

이렇게 근로자의 소득이 달라질 경우 각 사업장에서는 보수 변동 사항을 그때마다 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에 대한 기업 부담이 막중해 정부는 1년간 바뀐 보험료를 이듬해 4월에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

준인 당월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은 추후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22년도 건강보험료는 2021년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하고 2023년 4월에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식이다.

정산에 따라 2022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21년보다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면 당월 보수월액이 감소한 경우는 차액만큼 돌려받는다.

지난해 기준 1599만 명의 직장가입자 총 정산 금액은 3조3254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21만3352원이다.

정산에 따라 건보료가 조정된 직장가입자 중 965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반대로 310만 명은 전년 대비 보수가 줄어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환급받았다.

김재환 기자